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국내 65세 이상 접종할 듯

## “전체 대상자서 코로나 예방효과 확인” 중앙약사심의위 거쳐 4일 결과 공개

‘고령층 무용론’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첫 번째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고령층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조건부 판매 승인을 내린 상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검증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령층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초 임상시험 계획이 만 18세 이상으로 설계됐고, 백신을 투여한 후 면역 반응이 성인(18~64세)과 유사한 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다.

검증 자문단이 안전성 평가에서 살펴본 4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2만3745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8.9%(2109명) 정도다.

검증 자문단은 또 임신부 투여와 관련해 ‘임신기

간 중에는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 다만 검증 자문단 회의는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의 객관적인 허가심사를 위해 ‘3중’으로 마련한 첫 번째 자문 절차여서 해당 의견이 곧 접종 범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품질자료를 심사하고 이번 자문단 회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4일 다음 자문단체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를 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은 데 따라 이들을 제외한 65세 미만 성인에 한정해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29일 만 18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권고했다. 이어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백신의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적인지는 유럽에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전남도, 3월 말까지 5만7000명 접종 계획

코로나 의료진은 이달중 조선대병원서...인력 부족 우려 간호대생 투입 논의도

전남도가 3월 말까지 도민 5만7000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 19 전담 공공병원 의료진 등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자,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연중, 거의 모든 도민에 대해 접종이 이뤄지는 탓에 접종 인력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에 ‘간호대생 접종 현장 투입’을 건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도 발 벗고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은 전체 도민 185만명 중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를 제외한 156만명이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정한 접종 우선순위 및 백신 국내 반입 일정 등을 고려해 개략적인 연간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2월 중 전남에 예정될 초도 백신 물량을 포함해 전남도는 3월 말까지 코로나 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800명·순천, 강진의료원, 목포시립병원)와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5만7000명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

치료 병원 의료진 등은 조선대 병원에서 2월 중 접종받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6월까지 추가로 47만1000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며, 대상은 코로나 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5만9300명), 65세 이상 어르신(40만1900명), 의료기관 근무 보건종류(1만600명) 등이다.

하반기까지 성인 만성질환자(5만여명), 소방 및 경찰 등 필수인력(8800명),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3만6000여명), 50~64세 성인(24만여명), 19~49세 성인(68만7000여명) 등 103만여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연간 도민 대다수를 접종해야 하는 탓에 의료 인력 부족이 우려되자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보건소 방문접종팀, 접종센터 간호사 업무 분담을 위해 간호대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해 간호 보조 역할을 맡게 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성인오락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광주시가 성인오락실 15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관내 한 성인오락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시, 2급 실장급 전보인사

의회사무처장에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에 문범수

광주시는 “2일자로 2급 실장급 전보인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은 시의회사무처장으로, 문범수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피로도를 감안해 이번 인사 전보인사를 했다.

정 실장은 2018년 12월부터 2년여간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위상제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대응 지휘본부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맡아왔다. 문 사무처장은 시의회 운영 혁신 및 의정 활동 지원에 힘써왔으며, 행정안전부 재해대책 분야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광주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동력 제고와 안전도시 광주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민곤



문범수

## 교회가 전파...송원여상 학생 8명 집단감염

광주 첫 학교내 감염...방과후 수업·새 학기 비상

방학기간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고교생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후 학교 내에서 다수가 확진자로 분류된 것은 광주 예전 처음 인데다, 방과후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확진자로 분류된 송원여상 학생 8명의 방과후수업 참여 과목은 메이크업반 2명, 헤어반 2명, 워드실기반 2명, 공무원반 1명, 전산회계반 1명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실기 과목 특성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교사와 해당 학생 가족 등 밀접 접촉 인원 9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또 이들 확진자 중 한 명의 가족이 광주 지역 집단 감염지로 분류된 모 교회에 다녔던 사실을 확인했

다. 하지만 이 가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 학생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엔 방과후수업에 참여한 광주 광덕고 학생이 확진자로 분류돼 방과후수업에 참여한 1~2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다. 현재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방과후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 학생의 감염경로를 파악한 뒤, 일선 학교의 방과후수업과 새 학기 등교 방침 등 학사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4월 1일~5월 9일 개최

39일 일정...관람시간·인원 제한

오는 26일 개막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 차례 더 연기돼 4월 1일 개최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일 오전 제문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3차 긴급 이사회에서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한 달 가량 연기해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9일 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비엔날레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73일 간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주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감하고 전시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에 앞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수준 높은 전시 구현, 참여 예술가의 안전한 작업 환경, 관람객 안전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2020년 9월에서 2021년 2월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재단 측은 전시 기간이 축소된 것과 관련, 관람객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온라인 전시를 준비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관람객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시 기간 동안 관람 시간대 별로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에 따른 전시관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역 조치를 위해 매주 월요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휴관되며 개관 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로 조정됐다.

## 투자 하실분 3억 이상

**경매 낙찰된 특수물건  
급매 / 부도직전 물건  
경기 / 수도권 물건  
수익률 좋음**

**(주)오천. 010-3605-5000**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을 검색하세요.

## “월급”도 받고! “마케팅 전문가”도 되고!!

# 청년 지원자 모집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 다변화를 위한 **홍보 마케터 인력양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2021. 01. 12 | 화 ~ 03.08 | 월 | 18:00까지

**사업명 |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모집대상 **청년(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대상**

지원내용 **월급 230만원(급여 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 4대보험 포함**

접수방법 **061-430-8362~8      문의전화 온라인 접수(http://jeipiwork.net)**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전남연구원
구례군
보성군
완주군

## 민식이법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강상구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1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정훈

---

###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합91 (2020전고40)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고인 : 양준호  
위 피고인은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합의)  
판사 노재호

---

### 정정공고

본지 2021년 1월 28일자 게재된 공고인 김한재의 분묘개장공고(1차) 중 분묘기수5기를 분묘기수6기로 정정공고함.

2021년 2월 2일

### 산행안내

2월 7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7일(일) 강원도, 평창군, 흥천군&계방산 1577.4m&한강지맥산행, 영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앞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주차장 05:30 ※ 다 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